

산자부, R&BD 프로그램으로 기술자·경영인 공동법인 설립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기술개발자와 전문경영인이 함께 신설법인을 설립,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프로그램'을 9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던 한계를 벗어나 '기술적 성공'은 물론 '상업적 성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술자와 경영자가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협력하고 ▲사업화 전략에 대한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초기단계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선 1단계 사업기획 시에는 창업투자회사·컨설팅회사·경영전문기관(BA)이 기술보유자와 공동으로 시장분석 및 사업모델(BM), 사업전략을 계획하는 데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경영전문기관이 기술보유자와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 시장 출시가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고 10억원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민간자금 또는 정부운영 투자조합과 연계해 양산 및 마케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자부는 올해 16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9년까지 100여 개의 신기술 기업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 IT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2457억 투입

IT가 주축이 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앞으로 5년간 2457억원이 투입돼 고령친화 생활체험 서비스가 실시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고령화 관련 신규수요를 조기 산업화로 유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457억원을 투입해 고령친화산업 인프라 확충, 핵심전략품목 기술개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화지원센터 설립, 종합체험서비스 사업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택·원격진단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의료기기 ▲실내의 이동지원시스템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 IT제품에 국가 표준제정 확대 및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유망품목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전문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고령친화사업은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충남 건양대 실버산업 ▲부산대 고령친화산업 ▲김해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로 추진되며 시장 규모는 2002년 6조 4000억원에서 2010년에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내년부터 공공기관 중기제품 50% 구매 의무화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공청회에는 각종 조합과 업계 대표, 학계, 연구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와 경쟁입찰제도에서 중소기업제품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끼리의 제한경쟁이 의무화되고 공사용 자재는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 전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생산 물품 구매액의 5%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제품의 납품가격 안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70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조사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전대열)이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관계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자금, 판로, 인력, 기술, 수출, 정보화 등 11개 분야에서 총 170가지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지원책이 가장 많은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37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지원은 시설자금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비롯해 생산기반자금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청정기술생산 보급자금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환경개선자금 ▲IT중소벤처 성장환경조성자금 ▲보건산업진흥자금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금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원시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보를 담은 무료책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꼭 알아야 할 170가지 최신 지원시책>를 발간했다. (문의 02-509-7014)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로 해외거점 마련 비용절감에 한몫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수출 거점을 마련할 때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 중진공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개별기업이 직접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업체당 연간 1억여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약 3.5평 크기의 사무실을 월 15만원 내외의 임차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과 컨설팅, 시장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부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미국 시카고에 최초 개소한 후 현재 6개국 9개소를 운영 중인 수출인큐베이터는 개소 이래 올해 8월까지 6억 2000만달러의 수출성적을 달성하는 등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입주 전후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상담 실적이 입주 전 연 27.5건인데 비해 입주 후 연 63.4건으로 130.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1560억원의 수출 실적을 거둬 102.9배의 성과를 냈다.

진출 지역도 미국, 브라질,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이미 활동 중인 미국 시카고, 워싱턴, LA 외에 오는 11월 뉴욕 개소를 준비 중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진출 시 문화, 언어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제대로 자리 잡아 영업하려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 비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수출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내 벤처기업 중국진출 돕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김태현)은 중국 강소성정부 강소성정보산업청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정책교류 및 관련기관의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 중국진출을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및 관련행사를 돕게 된다.

진흥원은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강소성정부가 주관하는 ‘CIS 2005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이전 사

업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내 민간 및 공공 연구개발 연구기관과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중국진출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열린 이 설명회에는 크립토탐레콤, 나일소프트 등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10여 개가 참여했다.

진흥원 측은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참가업체의 우수기술을 해외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강소성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장선점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및 경영·투자유치전략 아카데미 개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업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마케팅 방법론, 자금전략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 **교육대상** :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직원
- **교육일정** : 2005년 10월 5일(수)~7일(금), 10월 10일(월)~12일(수)
- **교육장소** : 한국문화콘텐츠센터 4층 강의실3
- **수강료** : 10만원(교재비 포함) / 3, 4차 수강 시 17만원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과학기술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박희용 팀장, 이은영 대리(02-6009-8501)

여성기업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기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역경을 딛고 기업가로서 안정된 자리에 오른 여성벤처인들의 실제적인 체험을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써 초기 여성기업인들에게 용기와 경영방침을 제시해 주고자 여성기업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행사 개요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는 '2005년 산업기술주간'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동 행사기간(10월 20일(목)~26일(수)) 중에 개최함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 **후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일시** : 2005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 332호

행사 내용

송해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의 인사말, 격려사, 미립기술 주혜순 대표 외 4명의 성공사례 발표, 질의응답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www.kovwa.or.kr),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 **신청마감** : 2005년 10월 14일(금)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이은영 대리
(02-6009-8501)

대덕특구지원본부 윤곽 드러나, 3개 조직 구성

대덕R&D특구 지원본부 조직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대덕특구지원본부 설립위원회는 9월 9일 이사회를 개최, 특구 지원본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우선 특구 지원본부를 크게 사업지원단과 대덕특구복지지원센터, 총무부 등 3개로 구성해 출범키로 했다. 사업지원단과 총무부에는 일차적으로 총 30여 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중 9명은 기존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나머지 20여 명은 이번 주에 공모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복지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기존 연구단지관리본부의 인재들로 충원될 전망이다.

특구지원본부의 직속 기관으로는 사업지원단과 총무부가 있으며, 부설 개념으로 대덕특구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특구의 기술상용화를 담당할 사업지원단은 기술사업화팀을 비롯해 투자협력팀, 기획홍보팀, 특구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총무부와 더불어 총 30여 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전체적으로 특구의 복지를 책임질 대덕특구복지지원센터는 규모가 가장 크며 담당할 분야도 다양하다. 지원본부의 행정을 담당할 행정부를 비롯해 특구 내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할 체육공원부, 어린이집 등 3개 파트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원본부의 인력은 출범초기에 30여 명으로 출발, 내년에는 두 배 이상인 60여 명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구 예산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상태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홍보클러스터 결성, 매월 정례기자간담회 개최
 대덕R&D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홍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구본탁)와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전재근)은 특구 내 벤처기업 홍보 실무자들의 모임인 '대덕밸리벤처연합회 홍보클러스터'를 발족하고, 9월 22일 오전 10시 대덕밸리테크노마트 1층 멀티이벤트홀에서 창립총회 및 정례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홍보클러스터는 지난 2001년 10월에 창립된 '대덕밸리벤처기업 홍보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보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대덕 특구의 홍보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의균 원테크놀로지 상무가 추진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특구 벤처기업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덕특구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를 열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기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특구 벤처기업 알리기에 나서겠다는 것. 또 벤처기업에 적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담당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연회와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례기자간담회는 월 1회 실시되며, 행사 때마다 2~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VD Scrap



◀ 2005년 9월 8일 아사신문 12면

아사신문은 9월 8일자에 '한국벤처 재육성'이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정부와 협회가 올해를 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과보호를 피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쉬운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안철수연구소, 레인콤, NHN 등 어려움을 이겨낸 기업들은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게재했다.

▶ 2005년 9월 16일 전자신문 1면

중기청이 내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에게는 벤처확인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벤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 기회를 주는 벤처확인 재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중기청은 협회를 재심 접수창구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